

“도시철도 2호선, 인근 지자체 연계 환승센터 시급”

역세권 공간 활용 '고령자 우선 정주구역' 지정 필요 광주전남연구원, 공공복합청사·의료집적시설 모색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기공식을 계기로 도시의 미래 도시공간정책과 교통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담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철도 1·2호선과 버스교통 간 역할 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수요관리 시책 추진,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광주 인근 장성, 담양, 나주, 화순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설치 등 역시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용수요가 높고 개발여건이 양호한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하

공간 활용, 공공복합청사 신설, 의료집적 시설 등에 대한 밀도를 상향하는 제도를 모색하고, 역세권 내 '고령자우선 정주구역'을 지정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공공주택 조성정책의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광전 리더스 인포'에서는 미래 광주시 도시공간 및 교통 추진정책을 제시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착공 : 기대와 전망, 그리고 발전방향'을 주제로 했다. 이 보고서는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

연구실이 지난 5일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착공의 의의'와 '도시철도 2호선 효과 및 전망'을 살펴보고, 개통 이후 고려가 필요한 '미래 광주시 도시 및 교통의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시민 공헌과정을 통해 민주적 절차로 추진되었다는 점, 지방도시 최초 순환형 노선이라는 점, 약 100만명의 지역민이 도시철도 2호선의 수혜를 받는 점 등에서 1단계가 개통되는 오는 2023년부터 광주의 도시철도 시대가 개막된다고 평가했다. 도시철도 2호선 완전 개통으로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이 현재 3.30%에서 2025년 12.07%로 약 4배 증가하고, 환승역 등 거점역세권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발 현상이 나타나며, 개인 승용통행 등 자동차 통행이 감소함에 따라 도시의 대기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구도심과 신규 택지지구간 균형발전 개연성이 높고, 약 4조 7000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만777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링(ring)' 형태의 순환선을 활용해 노선 내부공간을 채워나가는 공간관리 계획을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고, 내부공간의 저이용 및 미이용 공간에 대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점언하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 전남 3개 사업 선정

순천·광양·담양 추진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순천시의 '1945기억 공간사업' 등 전남도의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사업에는 국비와 시군비 등 5억원이 투입된다. 전남지역 선정 사업은 '1945기억 공간사업'과 '광양시 우리읍내 사색에 담다', '담양군 문화가 익어가는 해동문화예술촌'이다. 순천시의 '1945기억 공간사업'은 순천시 제1호 기업으로 1945년부터 간장 등을 만들었던 김방 장유양조장을 활용한 '문화바탕' 프로젝트이고, '광양시 우리읍내 사색에 담다'는 스토리가 있는 광양을 옛길을 통해 거점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담양군 문화가 익어가는 해동문화예술촌'은 문화촌으로 탈바꿈한지 오래된 양조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빚어내겠다는 사업이다. 3개 사업 모두가 지역의 개

성을 잘 입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거나 오래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주민 참여 및 체험, 음악회를 비롯한 문화예술품 공연, 전시, 예술창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문화가 있는 지자체 공모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의미를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문체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날이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 2000여 개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가균형발전정책 현장설명회 나주혁신도시 한전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남도는 지난 6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국전력본사 비전홀에서 전남도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전남지역 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정책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균형발전정책 특강,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계획 설명, 이전공공기관 소개 및 채용계획 발표, 한국전력공사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디자인비엔날레 개막... '볼룸 헬로 이모그램' 체험
이용섭 광주시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6일 열린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 참석 후 전시장에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유해진 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길형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사진 오른쪽부터)과 키스미 클로스의 작품 'Ball Room'을 체험해 보고 있다.

조오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은 "국가균형발전정책 특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성공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주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 시즌2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현황과 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윤 단장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인사 담당은 공공기관 소개와 함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 채용 직무 등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 후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견학해 취업 선배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등 한국전력공사 취업을 바라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시간을 제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서남동 인쇄거리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선정

35억 들여 인프라 구축

광주시는 310여개의 인쇄소가 밀집된 동구 서남동 일대 인쇄거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10명 미만 종사자 수를 보유한 제조업체)수가 50인 이상인 곳에 대해 사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서남동 인쇄거리는 1940년대 전남도청이 있었던 때부터 인쇄업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80여년 동안 그 명맥

을 이어왔으나 최근 산업환경 변화와 종이 인쇄산업의 쇠퇴에 따라 지역 기업들도 침체가 가속화됐다. 광주시는 지역 인쇄출판 업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남동 인쇄집적지 거점 마련을 본격 추진했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 말까지 국비 15억원과 시비 20억원 등 총 35억원으로 공용장비 및 공공기반 시설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쇄소공인의 시장을 다각화할 마케팅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쇄집적지를 활성화하고

디자인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역의 인쇄문화를 세대에 전파·계승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특화사업 선정으로 집적지구 소공인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온라인 물 입점 등 마케팅 비용지원을 위한 판로지원과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 개발 지원 등 소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인쇄소공인 특화사업 선정으로 서남동 일대 인쇄소공인들의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조선산업 등 논의 유럽 순방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8일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10일 동안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김 지사는 이번 유럽 순방 기간 동안 선박 수주 지원과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후보 등을 위해 그리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을 방문한다. 전남의 새전면 비전으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한 김 지사는 이에 맞춰 출장 일정을 잡았다.



김 지사는 먼저 대한조선 관계자와 그리스를 방문해 게오르기오스 빠풀리스 리아터기주지사를 만나 조선산업과 섬 관광 개발 등에 대해 회담을 갖고, 대한조선과 그리스 대형 선사의 선박수주 계약을 지원한다. 러시아에서는 한전 관계자와 모스크바의 스킨코보 혁신센터를 방문해 스킨코브 관계자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대해 회담한다. 독일에서는 민헨의 스마터투게 더 등 현장을 둘러보고, '블루 이코노미'의 전략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블루 트랜스포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군터 플라터 티를 주지사와 회담을 가진 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오후에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를 찾을 예정이다. 이어 인스브루크에서 리하르트 하우저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명예대사와 비엔나에서 전남 출신 영산그룹 대표 박종범 회장을 만나 농축산업 6차산업화 방안과 관광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전남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년 인재 육성 요람' 전남학숙 새 비전 선포식

전남학숙이 새로운 비전 선포를 계기로 청년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학숙은 지난 5일 학숙 대강당에서 '꿈을 품고 사는 젊은이들의 요람'이라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다짐했다. 새로운 비전은 직원과 학생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제안, 설문 및 투표 등 선호도 조사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항상 꿈

꾸며, 스스로가 꿈을 찾는 젊은이로서 꿈을 갖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남도 정찬근 자치행정국장은 기념사에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로 전남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데는 청년 인재 육성이 그 시작점"이라며 "전남학숙의 새로운 비전 선포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